

중고선가, 신조선가지수 동반 상승 & 선가 상승 확인은 7월 이후?

코멘터리

대표 차트

수주가 계속 됩니다

- ① Euronav가 장기용선 기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발주했습니다.
- ② Trafigra 용선사가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8척, 아프리카막스 탱커 4척 등 22척을 발주할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전체에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주 선가지수는 신조와 중고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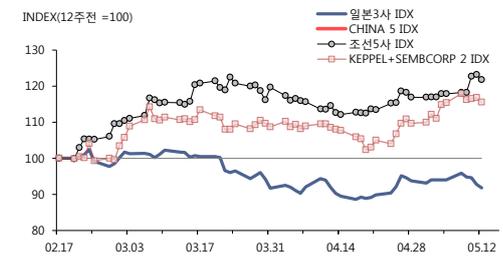
- ③ 중고선가지수는 탱커 전선형 상승과 컨테이너선의 상승으로 지난주에도 1p 올라 86p를 기록했습니다. 2월 78p에서 최근 86p로 그야말로 급등 중입니다. 신조선가지수는 파나마막스 벌크선과 MR/핸디 탱커 상승에 힘입어 1p 반등한 122p를 기록했습니다. 중고선가가 3월부턴 2달째 상승 중인 가운데, 신조선가의 확연한 반등을 기대합니다.
- ④ 신조선가는 7월을 지나서 반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VLCC 러쉬에 대한 시장, 선사 및 기관의 평가 인터뷰에서, VLCC 발주는 이미 30여척에 옵션 20여척이 대기 중이어서 향후 슬로우해질 것이라고 예측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신조선가는, 옵션 행사 만기인 6월~7월에 옵션이 계약으로 다수 이어질 경우, 이후 VLCC 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당사는 현대조선그룹의 백로그 반등 이후 가을~겨울에 선가 인상 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주가의 2차 랠리도 신조선가 반등 확인 이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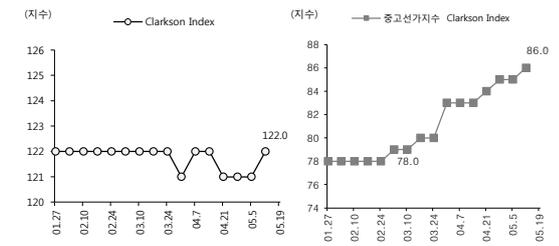
건설기계는

- ⑤ 4월 중공 건설장비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판매가 112% 늘며 좋았습니다. 다만 고마츠 굴삭기 가동시간은 4월 미국과 유럽이 역성장했습니다.
- ⑥ 두산밥캣이 13억 4,500만\$의 차입금을 리파이낸싱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자회사 CEC가 \$1,345m를 신규 차입하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금리가 기존 4.9%에서 3.8%로 1.1%p가 낮아집니다. 즉 이자비용은 기존 \$65.9m에서 \$51.1m으로 \$14.8m, 즉 대략 170억원 줄입니다. 이는 2016년 세전이익 2,850억원의 6% 정도입니다.

▶ 한/중/일/싱 주가 추세: 한국 언더퍼폼



▶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 동반 상승



▶ 미포의 MR탱커 리세일 > 신조선가 & 선가 상승세



▶ 현대중공업에 22척 발주한다는 Trafigra 선사?

Traigura Beheer BV
20th Floor ITO Tower, Gustav Mahlerplein 102, Amsterdam, Netherlands
Tel: +31 20 504 1800, Fax: +31 20 441 5840, URL: www.trafigura.com
View 2 IPO and Capital Issues

Fleet

Type	Status	Name	Size	Unit	Dwt	GT	Flag	Built	Month	Builder	Owner
Tanker	In Service	Fair Trader	309,327	DWT	309,327	157,883	Marshall Islands	2001	8	Hyundai HI (Ulsan)	Traigura Beheer
Chem & Oil	In Service	Marlin Ametrine	49,999	DWT	49,999	29,683	Marshall Islands	2015	10	CSSC Offshore Marine	Traigura Beheer
Chem & Oil	In Service	Skiu	17,527	DWT	17,527	11,261	Marshall Islands	2009	9	Samho Tongyoung	Traigura Beheer
Chem & Oil	In Service	Ana Nzinga	17,497	DWT	17,497	11,260	Marshall Islands	2009	10	Samho Tongyoung	Traigura Beheer
Chem & Oil	In Service	Mavru	13,127	DWT	13,127	6,577	Marshall Islands	2011	11	Sekwang Shipbuilding	Traigura Beheer
Bunkering	In Service	Kluanje	6,190	DWT	6,190	4,568	Panama	2009	5	Zhejiang Fanshan	Traigura Beheer
Bunkering	In Service	Katyavala	6,190	DWT	6,190	4,568	Panama	2009	6	Rongcheng Shenfei	Traigura Beheer

주식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선가

선가상승 여부 6~7월 옵션 행사에서 결정
Clarksons 중고선가지수와 신조선가지수 동반 상승

ASP & 실적관련(국내외)

△ Clarksons 중고선가지수와 신조선가지수 함께 상승

- 신조선가지수 122p로 1p 상승: 파나마막스 벌크선과 MR/핸디탱커 선가가 상승
- 중고선가지수 86p로 2주만에 또 1P 상승: 탱커 전선형과 파나마막스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상승

△ Statoi이 Sverdrup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 조업 재개 알림

- Statoi의 Johan Sverdrup 프로젝트 조업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이후 6일 만에 재개되었다고 밝힘
- > 국내보도를 통해서도 조업 재개 사실이 알려짐

▷ 현대미포, 일감 없어 유휴인력 급증...'유급휴업' 추진

<https://goo.gl/DNXidh>

- 노조는 최근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유급휴업 실시안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12일 밝힘
- 최근 물량 부족 부서 및 직종에 대해 최장 1개월의 무급휴직을 실시하자고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음
- 유휴 인력이 생기고 휴직이 불가피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 사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임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Energean, \$500m FPSO 입찰 개시

- 그리스 Energean Oil & Gas는, 1.3십억\$의 이스라엘 Karish gas & condensate 프로젝트(2020년 Onstream)에 투입될
- 5억\$ FPSO 입찰 시작: 200~300mCBM + 5천~6천B/D
- 2분기~3분기 본계약 예정: 프로젝트 금액에 대해 빨리 진행하면 할 수록 좋은 조건에 발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

△ Petronas FLNG, 장차 해외도 진출 할 것

- 말레이시아 Petronas는 해외 플레이어들과 장차 FLNG의 해외 가동을 위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 현재로서는 세계 최초 FLNG인 PFLNG Satu(1.2MTPA, DSME 건조)의 가동이 최우선순위이고, 후속으로 PFLNG Dua(1.5MTPA, SHI 건조 중)도 2020년 가동해야 하지만
- PFLNG1이 5년의 Kanowit 가동을 마치고 난뒤 해외 사이트 투입 등에 대해서 고민 및 협의 중: PFLNG Satu는 6월 풀 가동에 들어감
- 한편 Rotan 필드에 투입될 PFLNG2 Dua는, Petronas의 비용절감 때문에 2016년초 삼성중공업과 인도연기 협상된 바
- 최근 컨소시엄 파트너 Murphy Oil은 2020년 가동 스케줄은 그대로이며,
- 최근 주문제작한 Turret mooring system도 삼성중공업으로 운반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업황

△ 탱커 전문가들, VLCC 옵션 6~7월 행사에서 향후 선가 상승여부 결정될 것

- 2017년초 VLCC 발주 광풍은 차분해지더라도, 향후 옵션 슬롯이 VLCC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진단
- 2017년 벌써 30척의 VLCC가 발주된 가운데, Euronav CEO와 애널리스트들은 벌써 2016년을 넘어서는 발주 규모에 대해 과하다는 경고
- 20여척의 VLCC 옵션이 6월~7월 행사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옵션이 행사될 경우 신조선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ACM 대표는 해석
- 1월 VLCC 2척을 발주하고, 최근 VLCC 4척을 발주한 BW를 관리하는 DHT의 공동대표는 VLCC 발주 모멘텀은 슬로우해질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한국의 BIG3의 공격적 마케팅은 끝났고, 그들이 선가를 올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
- > 옵션 행사에서 가격조정이 있다는 것인지만,
- > 옵션까지 발주될 경우 두둑한 백로그를 확보해서 선가 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 > 아무튼 당사의 기대였던 가을~연말보다 빨리 선가 인상을 지켜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Frontline, 빈티지 VLCC 매각

- Frontline은 2000년산 302k VLCC를 \$21.5m에 매각
- 이제 Frontline은 2000년 이전 건조한 탱커 3척만을 보유 중
- 최근 현대중공업에 VLCC 2+2척을 \$80m 이하에서 계약했고
- 더하여 중국 New Times SB과의 2+2 VLCC 계약에 대해서는 부인

한국 조선업 수주실

▶ 신조 발주실(뉴스 단계)

△ Trafigura, 현대중공업에 22척 탱커 발주 심사속고 중

- 업계 선도 Charterer인 Trafigura는 한국 현대중공업에 탱커 22척 발주를 준비 중이라고 Tradewinds가 보도
- 22척은 8척의 수에즈막스, 4척의 아프라막스와, 여타 10척이라고 전하며, 수에즈막스는 척당 \$50.5m~\$51.0m이라고 전해짐
- 금융조달은 중국의 BoCom(China's Bank of Communications)와 KDB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발주설에 대해 Trafigura는 부정확한 정보라고 답했고, 현대중공업도 부인

③ Korea Line→Samsung HI, LNG(7500) 2척

(5월2주) △ 한국 소형 LNG선: 대한해운 → 삼성중공업, 신조선가 \$50m으로 알려짐

- 대한해운(KLC)이 Kogas 소형 LNG선 용선사(20년)로 선정되었고
- 삼성중공업에, 2019년5월과 12월 인도로 7,500k CBM 2척을, 척당 \$50m에 발주
- 신조선가 \$50m은 최근 인도된 5,000cbm의 신조선가여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브로커는 동일 선형을 중국에서 \$35m에 제시한다며 상당히 높다고 평가

(03월3주) ▲ Kogas 7,500cbm 소형 가스선 발주 추진

- 7,500cbm 2척 발주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PQ를 통과한 7개선사를 대상으로 4월13일 1차 결정
- 7개 선사는 SK shipping, KSS Line, Hyundai LNG Shipping, H-Line, Polaris shipping, Korea Line, Gwangyang Shipping으로 알려짐
- 7개 선사는 각각 조선사와 짝을 이뤄 입찰에 참여 예정
- LNG선은 2017년부터 제주도에도 연간 12천톤의 가스를 통영터미널로부터 공급할 예정
- 해당 선박은 KC-1 한국형 보냉창을 의무 장착해야하며, 이에 따라 이를 건조하고 있는 삼성중공업(SK해운 발주, 4Q17 인도)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우세할 것이라는 시장 평가
- 인도는 2019년3월 스케줄이며, 소형 LNG선은 향후 LNGBV로도 활용가능하게끔 건조 예정

한국 및 경쟁국 주요 수주 소식

▶ Clarksons에 신규 기입된 신조 수주건

05월2주(지난주)

②Euronav NV→Hyundai HI (Ulsan), TK(160k) 2척

- △ Euronav → 현대중공업, 수에즈막스 2척
- 뉴욕 상장사 Euronav는 Valero Energy와 7년 용선 계약 기반으로
- 현대중공업에 2척의 수에즈막스를 발주
- 과거에 발주한 1,2호선은 2018년 1월과 3월 인도이고, 이번에 발주한 3,4호선은 2018년 하반기 인도 예정
- 이번에 2척을 발주하면서 노후선 2척을 스크랩하기로 결정: 선복량 증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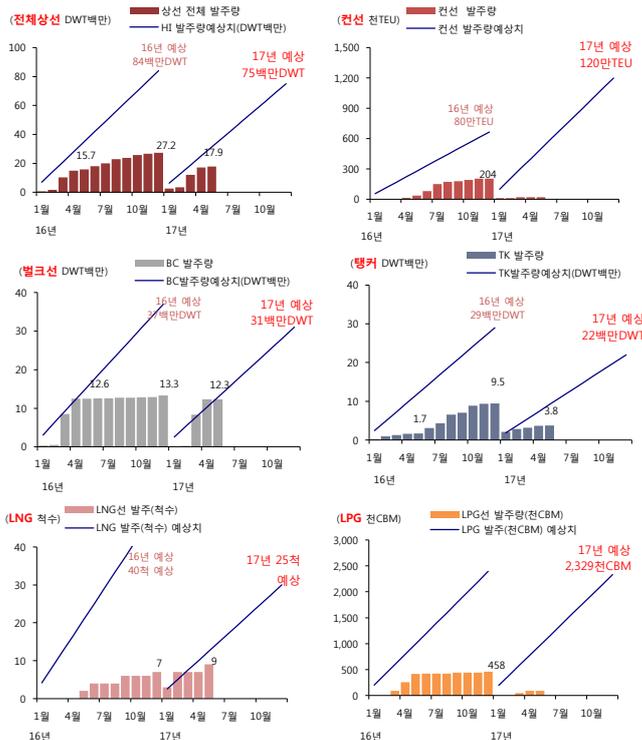
③Central Shpg Monaco→Hyundai Vinashin, PTK(50k) 1척

(5월2주) ▲ Central Shipping → 현대미포-비나신, MR탱커 1척 본계약

- Pistiolis는 이번엔 본인의 개인 회사 Central Shipping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1척을 발주함으로써,
- 최근 몇년간 Tops hips 등을 통한 발주를 모두 합쳐 10번째 발주
- 이번 선박도 Tier-II spec.에 2018년8월 단납기 인도이며, 신조선가는 \$32m으로 분석됨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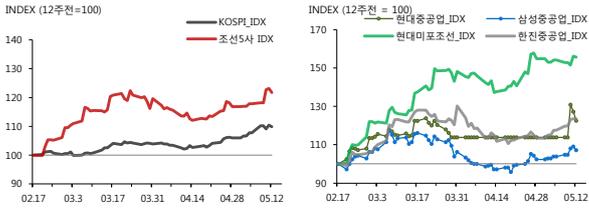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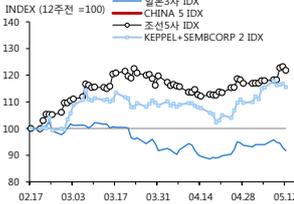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3월3주								
중국	CSSC Offshore Marine	17.3.24	아시아	CSSC Shipping (HK)	PTK	76k DWT	2018~2019	2
중국	PaxOcean Zhoushan	17.1.12	아시아	Jaya Samudra	LNG	26k cum	2018	1
17년03월4주								
BIG6	Hyundai Mipo	17.3.24	유럽	Solvang ASA	LPG	21k cu.m.	2019	2
17년04월1주								
BIG6	Hyundai Mipo	17.4.4	유럽	Solvang ASA	LPG	21k cu.m.	2019	2
	Daewoo (DSME)	17.4.4	유럽	Maran Tankers Mngt.	TK	318k DWT	2018~2019	3
중국	CSSC Offshore Marine	17.3.3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19	3
중국	Jiangsu New YZJ	17.3.30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8~2019	4
		17.1.1	유럽	Torvald Klaveness	BULK	84k DWT	2018	1
	Jinglu Shipyard	17.4.7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8~2019	4
	Jiangsu Hantong HI	17.1.1	Unknown	Carl Buttner	PTK	38k DWT	2018	2
	Xiamen Shipbuilding	17.4.5	유럽	Viking Line Abp	FERRY	3k Pass.	2020	1
일본	Hakodate Dock	17.3.23	유럽	M/Maritime	BULK	34k DWT	2018~2019	2
17년04월2주								
국영	Hudong Zhonghua	17.4.10	유럽	Odfjell ASA	PTK	38k DWT	2020	2
중국	Tsuneishi Zhoushan	16.12.1	일본	Nissen Kaiun KK	CONT	3k TEU	2018~2020	10
일본	Sumitomo (Yokosuka)	17.2.7	유럽	Lundqvist Rederierna	TK	112k DWT	2019	1
17년04월3주								
N/A								
17년04월4주								
BIG6	Hyundai Samho HI	17.4.21	유럽	Neda Maritime Agency	TK	319k DWT	2018	1
		17.4.27	아시아	Sentek Marine	TK	300k DWT	2019	2
	STX SB (Jinhae)	17.4.28	한국	Woolim Shipping	PTK	11k DWT	2019	2
				Sambong Corp.	PTK	11k DWT	2018	1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4.27	한국	Gs-Caltex Corp.	PTK	7k DWT	2018	1
중국	Jinglu Shipyard	17.1.1	중국	Huangshi Anyuan Shpg	CONT	1k TEU	2018	3
	Zhoushan Zengzhou	17.3.31	중국	Zhejiang Xinyihai	BULK	22k DWT	2018	1
	AVIC Dingheng SB	17.4.24	유럽	Erik Thun AB	PTK	18k DWT	2019~2020	4
	Taizhou Kouan SB	17.4.17	중국	Beibu Gulf Tourism	FERRY	1k Pass.	2018	1
	Nantong Xiangyu	17.4.28	아시아	Goldwin Shipping	PTK	39k DWT	2018	1
일본	Oshima Shipbuilding	17.3.30	유럽	CLdN Cobelfret	BULK	98k DWT	2019	2
17년05월1주								
BIG6	Samsung HI	17.5.2	아시아	BW Maritime	TK	319k DWT	2018~2019	4
중국	Taizhou Kouan SB	17.4.24	유럽	Reederei H. Vogemann	BULK	39k DWT	2018~2019	4
	Chengxi Shipyard	17.4.28	한국	Korea Line	BULK	82k DWT	2019~2020	4
17년05월2주								
BIG6	Hyundai Vinashin	17.5.11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PTK	50k DWT	2018	1
	Samsung HI	17.5.5	한국	Korea Line	LNG	8k cu.m.	2019	2
	Hyundai HI (Ulsan)	17.5.9	유럽	Euronav NV	TK	160k DWT	2018	2
민영	CMHI (Jiangsu)	17.5.5	북미	Sunstone Ships Inc	CRUISE		2019~2021	4
일본	Honda Zosen K.K	17.1.1	일본	Asia Pacific Marine	BULK	9k DWT	2018	2
	Imabari SB Marugame	17.2.1	아시아	Pacific Carriers	BULK	95k DWT	2018	1
	Kyokuyo Shipyard	17.3.6	Unknown	Unknown	LPG	8k cu.m.	2018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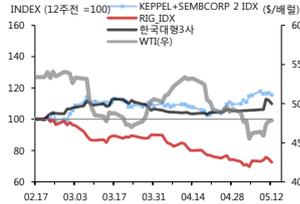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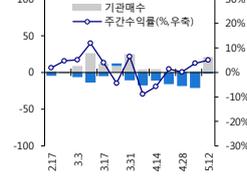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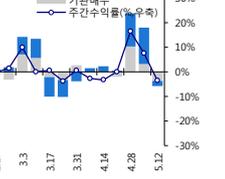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한진중공업



▶ 두산연진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조선 빅3, 수주 확보 위해 노르웨이 총출동

<https://goo.gl/mg0FYm>

국내 주요 조선 3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박람회 '노르시핑(Nor-Shipping)'에 참석해 홀수년마다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그리스 아테네의 포시도니아(Posidonia), 독일 함부르크의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SMM)와 함께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 국내 업체들은 업체별이 아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공동 부스'를 통해 참가할 예정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 유조선 22척 수주입박... 올들어 최대 수주건 될 수도

<https://goo.gl/CVm15S>

계약 규모는 최소 10억달러(한화 1조1263억원) 규모로 추산
조선해양시황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수에즈막스급 탱커는 척당 5300만달러, 아프리카막스급 탱커는 4300만달러
8척의 수에즈막스급 탱커(4억2400만달러)와 4척의 아프리카막스급 탱커(1억7200만달러)의 수주 규모는 5억9600만달러
여기에 선박 크기 확인이 어려운 10척의 유조선 수주가 가능한 상태
> 위의 수주설에도 외신 보도 기준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 현대중공업, 사우디 국영 바흐리社와 스마트십 사업 협력

<https://goo.gl/ZxdSwt>

7일 사우디 현지에서 바흐리와 스마트십 부문 협력관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
체결식에는 현대중공업 정기선 전무(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부문장)와 현대글로벌서비스 안광현 대표이사, 바흐리의 알리 알하리비(Ali Alharbi) CEO 등이 참석
바흐리는 사우디 국영 해운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척의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를 보유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십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바흐리 보유 선박에 이 기술을 적용해 나가기로 함
스마트십은 ICT(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돕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
연비나 배출가스 등을 고려해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하며 각종 기자재에 대한 이상여부를 진단해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
지금까지 300여척의 선박에 스마트십 시스템을 탑재
국제해사기구(IMO)가 2019년부터 선박운항 관리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도입키로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결국 1년 끈 현대중 임단협

<https://goo.gl/6ivPls>

지난해 5월10일 상건례를 시작으로 2016년 임단협에 돌입했지만 아직 협상을 매듭짓지 못함
사측은 고용 부담 차원에서 임직원 고용 보장을 전제로 기본급 20%를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
:대신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인상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000원 등 총 12만3,000원을 인상하겠다고 제시
vs 노조는 기본급 반납은커녕 오히려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사측은 지난달 1일자로 현대중공업이 총 4개 회사로 나뉜 만큼, 분할 시점 이후에는 4개 법인이 별도의 임단협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vs 노조는 '4사(社) 1노조'를 고수: 임단협 내용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이제는 협상 대상을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지마저 의견이 대립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차입금 감축 '5조원 아래로'

<https://goo.gl/uwXhbK>

3월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총 차입금은 약 4조 7000억 원을 기록
2016년 12월 말 5조 3000억 원보다 6000억 원가량 줄어든 수치: 선박 인도량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회수 등이 차입금 상환으로 이어졌기 때문
부채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진 건 삼성중공업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

▶ 대우조선해양 보도

▼ "1년도 안됐는데..." 대우조선해양 또 납품비리

<https://goo.gl/X8ccx1>

차장급 직원이 수년 동안 문구 납품업자와 짜고 회삿돈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납품 비리 납품업체와 짜고 물품을 빼돌린 납품담당 직원 3명을 지난 2월 거제경찰서에 고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은 7명이며, 납품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9명 이들은 조명기구, 용접칼날, 결선장갑 등 소모품 납품 업체와 짜고 수량보다 적게 납품을 받고도 전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8억~9억원을 가로챈

▷ 대우조선 영업이익률 10%는 진짜일까

<https://goo.gl/0lLcx>

지난 1분기 29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3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던 상황. 17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었는데, 아무리 손실을 미리 반영했다고 해도 불과 3개월만에 초호황기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 외부 감사인의 보수적인 회계 기준 때문에, 불확실성을 모두 작년에 손실로 잡았던 점도 인정 미리 반영한 손실이 1분기에 일부 수익으로 환입된 점, 고부가가치 LNG운반선의 인도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OPM 10%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다고 분석

▽ 대우조선, '분식회계 반성문' 8년치 재무제표 전면 수정

<https://goo.gl/wmzyhM>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8년간의 재무제표가 모두 수정 해당 기간동안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합은 변경 전·후가 모두 같다. 다만 연도별 금액은 달라진 것이 특징 선박의 납기 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 통보된 '공사변경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다고 판단

▶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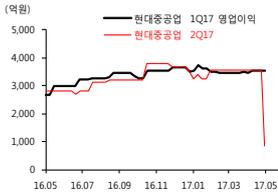
▽ STX조선해양, 손자회사 STX프랑스 매각 '빨간불' 켜지나

<https://goo.gl/Hl1r8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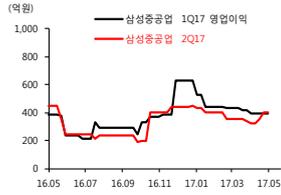
프랑스는 6월에 의회선거를 실시하는데 프랑스 유일의 군함건조 조선사인 STX프랑스의 매각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맞설 가능성 STX프랑스의 지분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STX유럽이 66.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3.3%는 프랑스정부가 보유 프랑스 내부에서 매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4월 초에 핀칸티에리가 STX프랑스의 지분을 50%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STX프랑스의 매각승인 문제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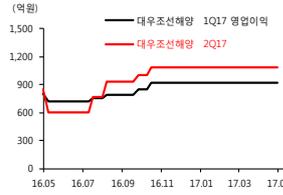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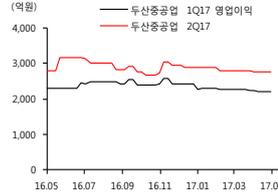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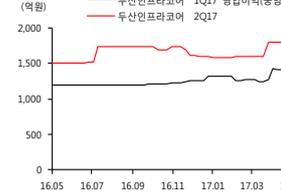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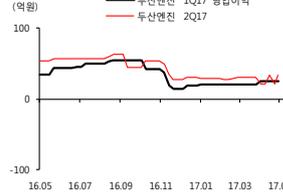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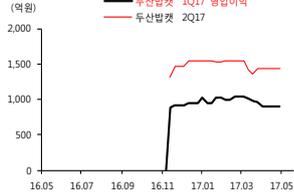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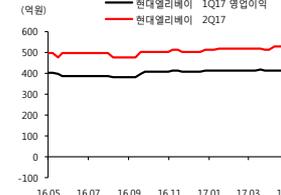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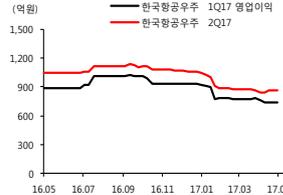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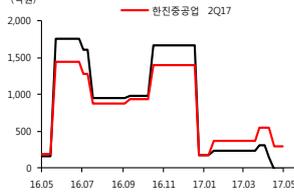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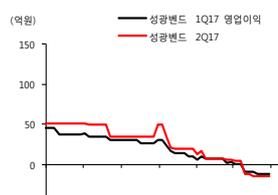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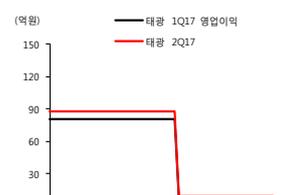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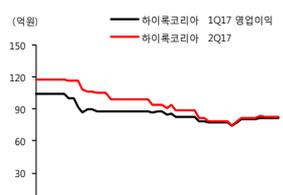
▶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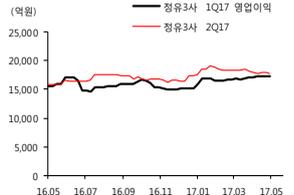
▶ 태광



▶ 하이록코리아



▶ 정유3사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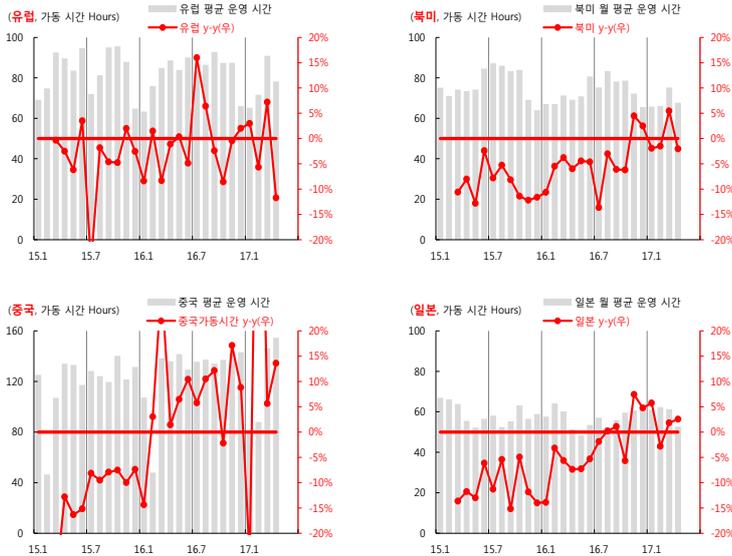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4.08	17.04.15	17.04.22	17.04.29	17.05.06	17.05.12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0,789	10,814	11,100	11,214	13,337	13,173	13,173	13,362	13,362	4,124	-63%	-69%	41.0	169,000	
	삼성중공업	254	254	235	260	281	283	281	319	307	307	18%	9%	36.8	11,300	
	대우조선해양	565	4,690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1,372	0%	0%	32.6	44,800	
	현대미포조선	6,640	6,135	5,710	5,627	4,027	4,027	3,878	3,914	3,914	3,914	-30%	-2%	23.5	93,100	
두산	한진중공업	1,816	989	495	454	157	157	108	14	14	14	-97%	-91%	264.6	3,680	
	두산중공업	2,103	1,996	1,971	1,739	1,693	1,683	1,490	1,490	1,490	1,519	-13%	-10%	16.1	24,400	
	두산인프라코어	848	862	909	784	788	785	785	785	796	796	1%	1%	11.7	9,310	
	두산엔진	136	57	170	188	265	283	409	318	148	172	-8%	-39%	22.9	3,935	
기계	현대엘리베이	6,020	5,775	6,019	5,703	5,598	5,597	5,580	5,580	5,580	5,323	-7%	-5%	12.1	64,600	
	한국항공우주	3,264	3,175	2,696	2,619	2,592	2,565	2,560	2,519	2,520	2,520	-4%	-2%	25.4	63,900	
피팅	성광벤드	283	215	198	123	49	38	-27	-27	-27	-27	최선	최선	-391.6	10,500	
	태광	1,125	223	206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49.3	9,310	
	하이록코리아	2,049	1,961	1,888	1,873	1,895	1,890	1,913	1,913	1,913	1,913	2%	1%	13.1	25,000	
정유	SK이노베이션	20,832	21,870	22,603	22,206	23,408	22,700	22,841	25,595	26,067	26,067	17%	15%	6.6	173,000	
	GS	7,992	8,541	8,938	9,315	9,340	9,430	9,437	9,437	9,437	10,222	10%	8%	6.1	62,000	
	S-Oil	10,898	11,043	11,276	11,438	11,073	10,828	10,833	10,833	10,833	10,833	-5%	0%	9.7	105,5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4.08	17.04.15	17.04.22	17.04.29	17.05.06	17.05.12	2017	2018	2017 PB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35,172	235,486	237,122	231,822	310,342	309,552	309,552	310,679	310,679	222,418	2%	1%	0.8		
	삼성중공업	17,130	17,335	17,381	17,225	17,519	17,500	17,300	17,867	18,160	18,160	2%	2%	0.6		
	대우조선해양	5,611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42%	-35%	13.7		
	현대미포조선	110,995	111,940	113,769	108,677	108,798	108,798	109,721	113,387	113,387	113,259	3%	2%	0.8		
두산	한진중공업	16,423	15,317	12,921	11,120	10,447	10,447	11,076	10,278	10,278	10,278	0%	7%	0.4		
	두산중공업	34,156	33,530	33,105	31,937	31,116	31,093	31,093	31,062	31,062	31,097	5%	7%	0.8		
	두산인프라코어	11,617	11,638	11,369	10,994	10,527	10,565	10,565	10,565	10,462	10,462	8%	9%	0.9		
	두산엔진	9,930	8,678	8,547	7,763	7,640	7,700	7,700	7,762	7,833	7,857	2%	2%	0.5		
기계	현대엘리베이	37,111	37,047	36,915	38,876	40,541	38,291	38,291	38,291	38,291	38,166	14%	14%	1.7		
	한국항공우주	17,132	16,957	16,627	16,591	16,535	16,500	16,469	16,336	16,330	16,330	15%	17%	3.9		
피팅	성광벤드	16,638	16,617	16,603	16,494	16,528	16,536	16,529	16,529	16,529	16,529	0%	2%	0.6		
	태광	18,024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524	23,422	23,495	23,643	23,983	24,153	24,035	24,035	24,035	24,035	8%	8%	1.0		
정유	SK이노베이션	203,200	204,632	204,670	198,892	201,001	199,976	200,263	203,479	203,479	203,479	13%	12%	0.9		
	GS	81,742	82,126	81,945	81,106	81,106	81,693	81,638	81,638	81,638	82,235	12%	12%	0.8		
	S-Oil	63,485	63,495	63,171	63,022	61,217	61,480	60,472	60,472	60,472	60,472	18%	19%	1.7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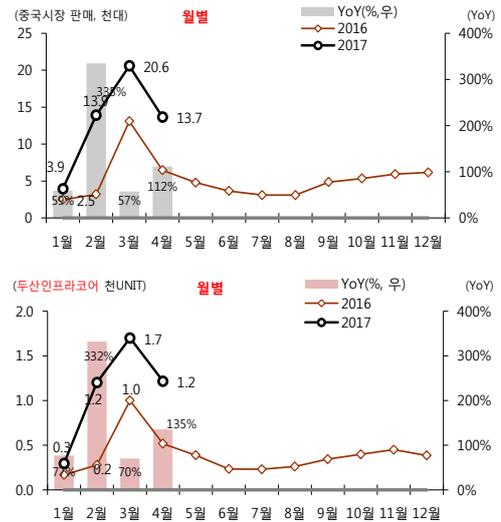
키 차트

▶ 4월 건설장비 가동 시간: 중국, 일본 양호 & 유럽, 북미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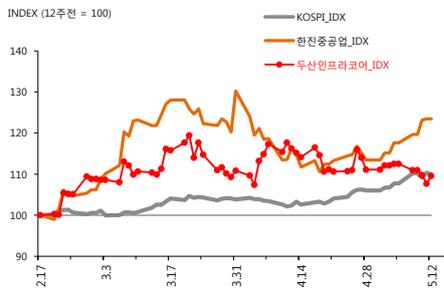
▶ 4월 중국 건설장비 판매 YoY 112%

: 두산인프라코어 YoY 135%로 상대적 강세 지속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두산인프라코어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두산기계3사 등

△ 두산밥캣 "자회사 CEC-DHEL 차입금 13억불 리파이낸싱 추진"

<https://goo.gl/LMWecj>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클락이퀵먼트(Clark Equipment Co-CEC)와 두산홀딩스유럽(Doosan Holdings Europe-DHEL)의 차입금 13억4500만달러에 대해 리파이낸싱을 추진

우선 CEC는 13억4500만달러를 신규로 차입한 후 이에 상당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

두산밥캣은 CEC로부터 받은 유상감자 대금을 재원으로 DHEL에 13억4500만달러를 출자, 기존 차입금(13억4500만달러)을 전액 상환 리파이낸싱을 통해 CEC와 DHEL의 공동차입자 구조 → 향후 CEC 단독 차입자로 변경될 예정

금리는 기존 차입금리 대비 1.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

기존 차입금 13억4500만달러의 법인별 차입금 잔액은 CEC가 5억800만달러, DHEL이 약 8억3700만달러이고, 금리는 약 4.9% 수준

△ 중국 굴삭기 4월 판매량: 전년대비 112% 증가

<https://goo.gl/DSYMyN>

4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내수 기준)은 13,673대로 전년대비 111.5% 증가

4월 업체별 판매 순위는 1위 Sany 2,738대(+128.5% YoY), 2위 Caterpillar 1,451대(+66.8% YoY), 3위 XCMG 1,401대(+130% YoY),

4위 두산인프라코어 1,217대(+135.4% YoY), 5위 Komatsu 1,019대(+115.9% YoY)

두산인프라코어의 점유율은 8.9%로 전월 8.3% 보다 소폭 상승

△ 두산건설, 790억원 부산 구서동 주상복합 사업 수주

<https://goo.gl/2ts8pl>

연면적 5만 2,153㎡에 지하6층, 지상 32층, 2개동 370가구(아파트 330가구, 오피스텔 40실)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

두산건설은 이번 구서동 주상복합을 포함해 현재 약 7,000억 원 가량의 공사 수주를 달성

: 수주가 확실시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금액은 약 1조 3,000억원이며 올해 수주목표 2조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큰 기계

▷ 주영걸 현대일렉트릭엔시스템 대표 “‘기회의 바다’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 선도할 것”

<https://goo.gl/1MrfFA>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은 연 250조원 규모로, 산업 트렌드와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거칠고도 매력적인 '기회의 바다'로 평가
지난 40여년간 전기전자기기 사업과 제어시스템, 조선해양 솔루션 사업 등을 수행했고 전세계 135개국, 3600여개 고객사와 신뢰
오는 2021년까지 매출 5조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1) 출발한 현대일렉트릭엔시스템이 매출 대비 2% 수준인 R&D 투자비율을 2021년까지 5% 이상으로 확대

주대표는 "유럽연구소, 품질신뢰성센터 등을 신설해 글로벌 기술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기술개발 인력을 큰 폭으로 확충해 매출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2) 영업은 "올해는 미주, 중동 등 주요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영업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

"원가 개선형 모델 및 지역 맞춤형 표준모델의 개발 기간을 단축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겠다"

동남아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련 지역의 영업력을 강화해 신규 고객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 현대건설기계, 원격으로 엔진고장 진단...美 커민스와 협업

<https://goo.gl/63h0ji>

자체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설장비 엔진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원격진단 시스템을 개발

최근 미국 엔진기업인 커민스와 '건설장비 엔진 원격진단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

엔진의 고장원인과 정비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애프터 서비스(A/S)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

기타 기계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 착수

<https://goo.gl/8zqv8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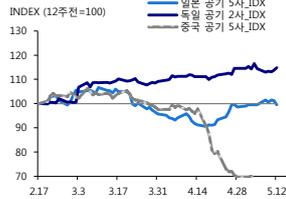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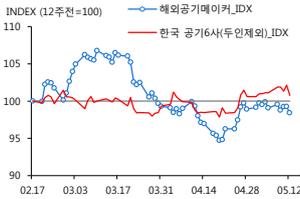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가 6년 만에 본격 착수

모두 10조원을 투자해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 부안군과 위도 남동쪽 해상에 모두 3단계에 걸쳐 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번에 첫 삽을 뜬 60MW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기간은 3년, 공사비는 약 4600억원이 투입

공작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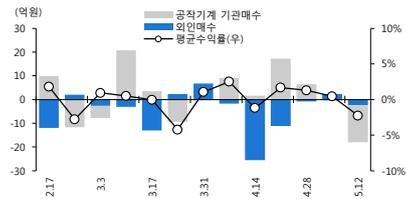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 (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이건 비율(%)	87.3 %	12.7 %	-